

17세기 여자 출토복식의 일례

- 전남 영암출토 경주이씨(?~1684) 분묘의 출토복식을 중심으로 -

안 명 숙

광주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A Case Study on a Woman's Excavated costumes in the 17th century

- Based on the excavation of the Mrs. KyungJu Lee grave in Young-am, Chonnam -

Myung-sook Ahn

Kwangju Univ. Division of design

(2000. 11. 23 투고)

ABSTRACT

Excavated costumes at the women's tomb in 17C have been sustained good condition. These materials give us that jang ui(長衣) and so chang ui(小褰衣) with chechori(襦), skirt, trousers(袴) reflects on women's fashion style at that time.

By seeing these costumes, we can get the characteristics of costumes in mid-chosun era with chechori, skirt, jang ui, so chang ui etc.

The features of chechori in this area are follows : form - diagonal gil, collar - kalkit and tangkokit, length - about 50cm, materials - silk, cotton, grass-cloth, kind - single, double, clothing padded with cotton wool etc.

It is the first time that chang ui, one of Po, is excavated in this area. There are three pieces of jang ui which is significant data to study deeply on the costume in 1700's. Jang ui mainly made of silk in pattern, silk, cotten and decorated stylish printing on the robes.

With these material and style, we can induce the mode of mid-chosun period. Through comparative studying we have many chances to understand women's the garment for the dead(殮襲衣) in mid-chosun period.

Key Words : jang ui(長衣), so chang ui(小褰衣), chechori(襦), skirt(裳), trousers(袴)

I. 머리말

출토복식이란 분묘(墳墓) 이장시(移葬時) 관내(棺內)에서 시신과 함께 발견되는 복식류를 말한다. 출토복식은 죽은 사람에게 입히기 위해 새로 만든 수의[敝衣]와 넓은 관 내부를 채우기 위하여 보공품(補空品)으로 넣어 둔 평상시 입던 옷으로 대별된다. 과거 사람들은 이러한 염습의(殮襲衣)를 생존시 착용하였던 의복을 넣음으로써 이승과 저승을 구분짓지 않고 하나의 연장선으로 이해하여 이승에서의 삶이 저승에서도 지속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피장자의 생존시 지위에 따라 의복의 종류와 염습의의 양을 구분하여 생존시의 지위를 상징하였다. 그 사회적 지위가 이승에서 지니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무형의 자산으로써 그 중요함을 의미하며 이는 당시 사회가 철저한 신분사회였음을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출토복식 연구는 조선전기 복식 유형연구가 대부분 문헌과 회화중심의 간접자료에 의한 연구였음에 비해 출토복식의 출현으로 다양한 복식형태를 직접적인 자료로 실물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서 큰 의의가 있다.

근래에 출토복식에 관한 연구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어, 그동안 문헌에 의존해왔던 복식계에 유물을 통해 많은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16·17세기 복식에 관해서는 많은 출토복식들이 있다. 금번 경주 이씨의 것도 여성의 분묘에서 출토된 17세기 여자복식의 한 면을 아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출토된 장의(長衣), 창의(釵衣), 저고리, 치마 등에 대해 시대적인 유형과 특징 등을 살펴보고 복식사적인 의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장의와 직령, 창의에 대한 명칭과 구분에 여러 확설이 있어 본인 나름대로 각각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았다. 또한 출토된지는 꽤 되었으나 아직 미공개된 자료이므로 학계에 알려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앞으로 이 연구를 계기로 17세기 복식 연구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깊이 있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다.

II. 출토유물의 배경

경주이씨 출토복식은 전남 영암군 서호면 장천리 야산에 소재한 천안 김씨(天安 金氏) 묘역의 분묘 이장시 출토된 조선 중기인 17세기에 해당하는 여자 분묘에서 출토된 복식이다. 현재 광주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출토된지는 꽤 되었으나 출토복에 대한 조사는 장의(長衣)에 대해 권영숙¹⁾의 논문에서 일부 언급되었을 뿐 복식 전반에 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아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경주이씨의 남편인 전택(全澤)의 생몰연대(生沒年代)는 족보에 승정(崇禎) 임자년(壬子年, 광해군 4년)에 태어나 무진년(戊辰年, 숙종 14년)에 졸(卒)하였으므로 생존연대는 1612~1688년이다. 그러나 경주이씨의 출생연도에 대해서는 여자의 분묘이므로 족보나 기타 문헌 등에 자세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돌아가신 연대에 대해서는 출토 당시 입고 있던 장의 소매에서 가로 세로 크기가 각 40cm인 창호지에 「丹紅一端, 草綠一端, 甲子五月初八日」로 쓴 납채단자를 통해 사망연대가 1684년이 확실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주 이씨의 출토복식을 통해 17세기 중기 복식의 특징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여자 분묘에서 출토된 것이나 배우자의 것을 넣는 풍속이 있어 여자의 의복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경주 이씨 분묘에서 출토된 출토복식의 종류로는 장의(3), 소창의(2), 저고리(5), 적삼(1), 속곳(1), 속바지(1), 치마(3), 버선(2), 신(1), 모자(1), 기타(4) 등 모두 총 25점이다. 이 중 복식인 포류(5), 저고리(6), 치마(3), 바지(2) 등 16점에 대해서 살펴 보겠다.

III. 경주이씨 출토복식의 유형과 특징

1. 포류

1) 長衣

장의는 시기별로 15·16·17세기 전시기에 걸쳐 나타나고, 지역별로는 경기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의 전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여자복식으로

장의는 단일품목으로는 그 출토량이 가장 많다.

장의의 형태는 두루마기와 거의 같으나 다른 점은 소매 끝에 흰색 또는 다른 색 형질을 넓게 댄 것과 옷깃·옷고름·겨드랑이의 삼각무를 다른 색(異色)으로 댄 점 등이다.

장의는 출토복식 가운데 옷깃의 형태가 직령이기 때문에 직령으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학자에 따라 남자의 것은 직령으로 여자의 것은 장의로 분류하기도 하고 남녀의 것 모두를 장의로 보는 학자도 있다. 세조 2년 今國中女子衣着長衣若男子然이라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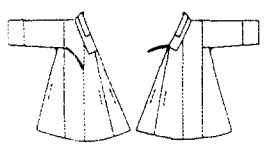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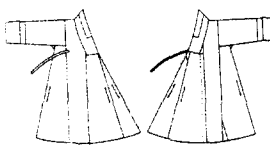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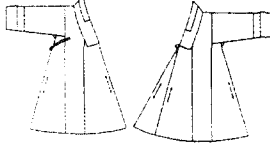
여 장의의 남녀 착용을 언급하고 있다²⁾. 또한 조선 시대 여자 장의제도는 남자 장의제에서 비롯되었고 남자의 장의와 같은 형제(刑製)로서 조선 초기부터 남녀귀천없이 두루 입혀졌다³⁾고 했다.

남자도 장의를 입었으므로 보통 출토 분묘에서 장의와 직령을 구분하지 않고 남자의 분묘에서 출토되면 직령이라 하고, 형태가 비슷함에도 여자의 분묘에서 출토되면 장의라 하였다. 출토 장의는 크기에 있어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남자의 것은 크고 여자의 것은 작아 남녀의 장의 착용을 입증한다

<표 1> 남녀 장의 비교

특징 \ 구분	남자 장의	여자 장의
색	단색계통	유색 계통
소재	무명계통--- 솜	명주·모시 등, 겹·홀·누비 등 다양
형태	품, 진동 크다	길이, 화장 길다

<표 2> 장의의 종류와 특징

종류	소재	색	치 수 (cm)	형 태	특 징	도 식 화
문단겹장의	겉:문단 안:명주	겉:홍색계 안:소색	길이 : 129 뒤품 : 28 진동 : 34 화장 : 78 깃너비 : 10 동정너비 : 5	겉깃 : 이중깃 안깃 : 이중깃 거들지 : 삼수형식 소매배래 : 사선형 배래 깃 : 대칭형 대금형 깃 : 목판깃	옷깃과 길에 문양있음-봉황문	
명주솜장의	겉:명주 안:견면 교직	겉:청색계 안:소색	길이 : 120 뒤품 : 29 진동 : 28.5 화장 : 75 깃너비 : 11.5 동정너비 : 5	겉깃 : 이중깃 안깃 : 이중깃 거들지 : 삼수형식 깃 : 목판깃		
무명솜장의	겉:무명 안:견면 교직	겉:짙은 남색 안:소색	길이 : 114 뒤품 : 25.5 진동 : 30 화장 : 69 깃너비 : 11 동정너비 : 5.2	겉깃 : 이중깃 안깃 : 단깃 깃 : 목판깃	·얇게 솜 두었음 ·기운 부 위 있음	

하겠다.

임란이후 장의에 대한 문헌기록으로는 의인왕후(1600년)와 인목왕후(1632년)의 빈전도감 의복복식⁴⁾ 중에 홑·겹·유(襦:솜)·납(裱:누비) 장의 등 다양한 장의들이 기록되어 있고 장의의 수는 의인왕후가 43점, 인목왕후가 50점으로 다른 포제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본 출토복식에 장의는 모두 3점이 들어 있었다. 출토된 장의의 종류와 형태 및 특징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았듯이 장의 3개의 소재도 각 다르고 색상도 여자의 장의로 유색계통임을 알 수 있다. 깃은 모두 목판깃이고 길이는 114~129cm이며 화장은 69~78cm로 별로 길지 않았다. 또한 문단겹장이는 화려한 문양이 施紋되어 직조되었는데 길에는 봉황문, 당초문, 화문 등과 깃에는 화문이 화려하게 있다. 장의는 시대에 따라 안설피, 소매배래형태, 衫袖양식에 차이가 있다. 이중설피인 겹설피와 소매의 거들지 형식인 삼수형태, 對襟形의 목판깃, 소매형태 등 세 점의 장의 형태는 비슷하다. 색은 다른 袍制에



<사진 1> 문단겹장의

비해 유색(有色)과 배색(配色)을 사용하여 화려하다. 깃과 끝동, 결무 등에 이색(異色)을 사용하였다. 바느질법도 겹장의는 상당히 꼼꼼하고 정교하나,

<표 3> 장의의 구분

종류 \ 부위	대창의	소창의	중치막
소매	광수	착수	광수
부	有	無	無
트임	뒤트임 있음	옆트임 있음	옆트임 있음

거들지는 뉘 수 있게 하기 위해 시침식으로 하였다. 세 점 모두 곳곳에 상침을 해 주었다.



- 깃 -



- 길 -

<사진 2> 장의의 문양 도안

2) 襜衣

창의는 조선시대 영조때부터 사용되었던 포로 받침옷⁵⁾이었다. 창의의 종류에는 대창의, 소창의, 중치막, 학창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학자들⁶⁾에 따라 의견을 달리한다. 학창의는 확실한 구분이

가능하므로 논지에서 제외하고 세종류의 창의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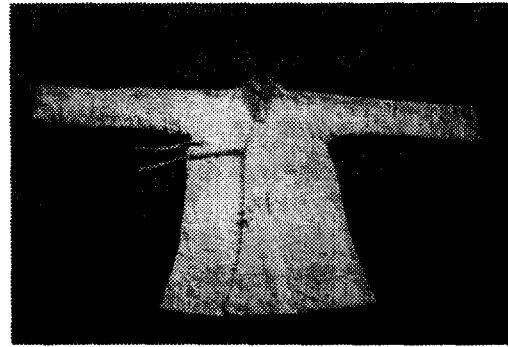
창의는 소매의 크기와 형태, 트임의 위치, 무의 유무, 선(襟)의 유무 등에 따라 대창의, 소창의, 중치막, 학창의로 구분된다. 구분이 애매해 대창의와 소창의 또는 소창의와 중치막을 확실히 구분하지 않은 학자도 있다. 본인은 여러 문헌과 출토복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창의에 대한 구분을 하고자 한다. 대창의와 중치막의 구분은 대창의는 뒤트임이 있어 아래서 보면 앞 두자락과 뒤 두자락으로 네자락 옷이며, 중치막은 옆트임만 있어 세자락 옷이라는 것이다. 소창의와 중치막의 구분은 형태는 같아 옆트임이 있으나 소매가 광수인 것은 중치막, 착수인 것은 소창의라 보았다. 따라서 본인이 보는 창의에 대한 이론을 정리해 보면 <표 3>과 같다.

따라서 본 출토복식에 있는 창의는 소매가 착수이고, 무가 없으며, 옆트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치막이 아니라 소창의 이다. 대부분의 출토복식 보고서에 의하면 소창의라는 것은 없고 중치막으로 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경주 이씨 분묘에서 출토된 소창의의 형태를 살펴보면 두 점은 치수나 형태가 거의 동일하다. 창의 중 하나는 양쪽 소매가 모두 떨어져 있는 데, 이는 파손된 것 같지 않고 장속(葬俗)으로 일부러 떼어

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겉·안 모두 무명에 솜을 두껍게 된 솜소창의로 걸깃은 칼깃이고 안깃은 목판깃이다. 앞자락 둘과 뒷자락 하나로 세자락 옷이며 양 옆에 트임이 길게 있고 하나는 트임이 겨드랑이 바로 아래부터 있어 트임이 65cm로 길고, 다른 하나는 54cm로 트임이 약간 짧은 것이 다른 점이다. 두 점 모두 기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생시에 입었던 옷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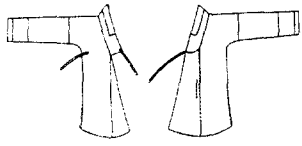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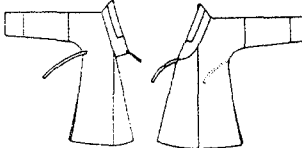


<사진 3> 소창의

2. 저고리

저고리는 옷깃, 길, 소매, 무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경주 이씨 분묘에서 출토된 17세기

<표 4> 소창의의 종류와 특징

종류	소재	색	치 수 (cm)	형 태	특 징	도 식 화
무명솜소창의1	겉:무명 안:무명	소색	길이 : 109 폭 : 24.5 화장 : 89 진동 : 30 깃너비 : 11 동정너비 : 5 트임부분 : 65	겉깃 : 칼깃 안깃 : 목판깃 소매 : 사선형 길 : 사선길	동정:갈변	
무명솜소창의2	"	"	길이 : 108 폭 : 25 화장 : 89 진동 : 35 깃너비 : 12 동정너비 : 5.5 트임부분 : 54	"	동정:갈변 양쪽소매 분리	

중·후기에 나타나는 저고리의 구성요소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형태

저고리 길이는 칼깃저고리나 당코깃저고리 별 차이 없이 40.5~53cm 이다. 가장 긴 저고리는 명주당코깃저고리로 53cm이며, 가장 짧은 저고리는 무명칼깃저고리로 40.5cm이다. 당코깃저고리가 칼깃저고리보다 평균적으로 보면 약간 길다. 저고리 품도 22~25cm로 비슷하며, 화장, 진동, 깃너비, 동정너비 등의 치수도 칼깃저고리나 당코깃저고리가 별 차이가 없다. 뚜렷한 차이는 깃의 모양에 있고 다른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2) 깃

이 시기는 목판깃은 없고 앞부분이 곡선으로 꺾여진 당코깃과 옷깃의 형태가 칼의 형태와 같은 칼깃이 있다. 출토된 저고리는 칼깃저고리 4점과 당코깃저고리 2점이 있다.

3) 길

저고리의 길 형태는 어깨선에서 밑도련까지 동일너비인 직선길과 겨드랑이 아래가 곡선으로 이루어진 사선길로 구분된다. 경주 이씨 저고리 길의 형태는 6점 모두 사선길이다. 겨드랑이 옆선의 굴림이 많으나 적으냐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사선길이다.

4) 소매

소매에는 진동과 수구의 차이가 없는 직선형과 진동과 수구의 차이가 큰 사선형으로 구분된다. 본 출토 저고리는 6점 모두 진동과 수구의 차이가 크지 않은 사선형이다.

5) 무

저고리의 무는 15세기에 처음 나타나며 출토저고리는 세가지 형태로 나타난다⁷⁾. 즉 사다리꼴, 삼각형, 곡선형 무가 있다. 겨드랑이의 무는 직선의 길과 소매사이의 터지는 것을 막는 실용성과 활동성을 부가하는 역할⁸⁾을 하였다. 후기로 올수록 장식의 역할도 커졌다. 그러나 6점 모두 무가 없었다. 무

는 목판깃에서 주로 나타나며 칼깃과 당코깃 저고리에는 무가 거의 없다.

6) 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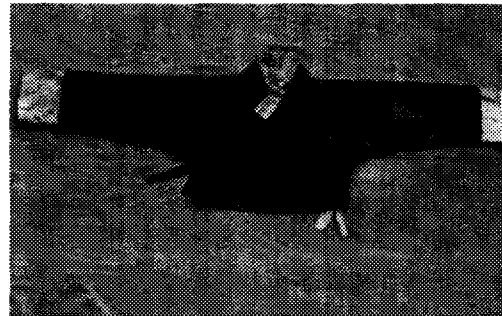
칼깃저고리는 출토복식 모두가 소색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본 출토 저고리도 모두 소색이다. 색으로 보아 표의(表衣)나 의례적인 옷보다는 일상용이거나 받침옷의 역할을 한 의복이라 생각된다고 하였는데⁹⁾, 경주 이씨 출토복에서 이러한 예가 보인다.

당코깃저고리는 칼깃저고리와는 달리 옷깃, 끝동 부위에 다른 색(異色)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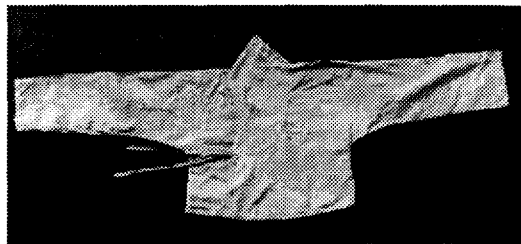
7) 소재

6개의 저고리는 명주 3, 무명 2, 모시 1점으로 되어 있다. 옷감의 상태가 양호하여 지금 입어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일 것 같다.

출토된 저고리는 6점으로 명주, 무명, 모시를 소재로 한 것으로 홑, 겹, 솜저고리가 모두 출토되었다. 저고리의 상태가 너무나 양호하고 솜을 둔 것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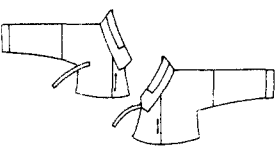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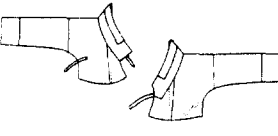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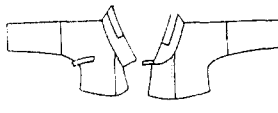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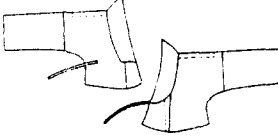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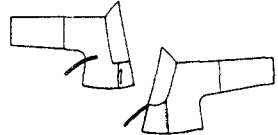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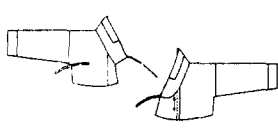


<사진 4> 명주솜저고리



<사진 5> 무명겹저고리

<표 5> 저고리의 종류와 특징

	소재	색	치수	형태	특징	도식화
명주숨저고리1	겉:명주 안:명주	겉:갈색 안:소색	길이 : 53 품 : 25 화장 : 79 진동 : 29 깃너비 : 11 동정너비 : 5.5	깃 : 당코깃 소매 : 사선형 깃 : 사선형		
명주숨저고리2	겉:명주 안:명주	겉:갈색 안:소색	길이 : 43 품 : 22 화장 : 73.5 진동 : 29.5 깃너비 : 11 동정너비 : 5	깃 : 당코깃 소매 : 사선형 깃 : 사선형	끝동 땀 동정 : 닥종이 심 사용	
명주숨저고리3	겉:명주 안:무명	겉·안: 소색	길이 : 50 품 : 24 화장 : 72 진동 : 30 깃너비 : 11 동정너비 : 4.5	깃 : 칼깃 소매 : 사선형 깃 : 사선형	다른 저고리에 비해 숨을 두 껍게 두었음	
모시적삼	모시	"	길이 : 46.5 품 : 23 화장 : 69 진동 : 29.5 깃너비 : 10	깃 : 칼깃 소매 : 사선형 깃 : 사선형	·겉감보다 고 운 모시로 등 바대 대었음 ·동정, 안고름 없음	
무명겉저고리	겉:무명 안:무명	"	길이 : 48 품 : 22.5 화장 : 72 진동 : 28 깃너비 : 12	깃 : 칼깃 소매 : 사선형 깃 : 사선형		
무명숨저고리	무명	"	길이 : 40.5 품 : 25 화장 : 70.5 진동 : 26 깃너비 : 11 동정너비 : 5	깃 : 칼깃 소매 : 사선형 깃 : 사선형		

<표 7> 치마의 종류와 특징

종류	소재	색	치 수	형 태	특 징
문단접치마	겉 : 문단 안 : 명주, 무명	겉 : ? 안 : 소색	치마길이 : 95 포폭 : 61 폭수 : 6폭치마(366cm) 허리말 너비 : 5.5 끈너비 : 4.5 주름 겉: 1.8 속: 5	굵은 주름 잡고, 선단과 밑단에 두툼 고정 상침	· 61cm의 광폭 치마 · 산수인물도가 위·아 래 마주 보고 있음-문양 특이 · 선단, 밑단없이 바느 질
무명접치마	무명	소색	치마길이 : 93 포폭 : 35 폭수 : 9폭치마(315cm) 허리둘레 : 73 허리말 너비 : 3 끈너비 : 3 길이 : 46(안자락) 68(겉자락) 주름 겉: 1.8, 속: 6 주름수 : 38		· 겉·안 모두 두툼 상 침 · 주름방향 : 안자 락 쪽으로
명주접치마	명주	겉 : 청색 안 : 소색	치마길이 : 105 포폭 : 49 폭수 : 6폭치마(294cm) 허리말 너비 : 4.5 끈너비 : 3.5 주름 겉: 2 속: 5.8		· 치마 가장자리 밑단, 선단없이 바로 연결하 여 박아서 뒤집음 · 치마 끈은 안감과 같 음

게 짠 것이다.

겹치마이므로 치마의 단과 옆선처리는 지금의 치마 바느질과는 달리 선단과 밑단없이 바로 박아서 뒤집었다. 주름너비는 겉주름은 1.8~2cm 정도이고, 속주름 분량은 5~6cm로 비교적 큰 주름으로 폭여며지는 형태이다.

세 개의 치마 중 보존상태는 무명접치마가 가장 양호하며, 명주접치마가 가장 많이 손상되었다. 치마의 바느질은 허리 부분이 많이 손상되었으나 주된 바느질법은 흠질이고 그리 고운 바느질은 아니다.

이 당시 치마의 길이는 90~100cm 내외의 짧은 치마이고, 허리말에 끈을 달아 사용하였으며, 주름의 깊이가 깊고 주름의 분량은 2cm 내외이다. 치마의 폭과 너비는 광폭도 사용되어 광폭인 경우는 6폭으로 폭의 수가 적었고, 좁은 폭은 폭의 수를 많이 해 9폭을 연결해 사용하였다. 치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문단의 폭은 61cm, 무명은 35cm, 명주

는 49cm로 문단의 폭이 가장 넓게 짜여졌고, 무명이 35cm로 가장 좁게 짜여졌다. 치마의 밑단과 선단도 현대의 치마 모서리 내는 식이 아니라 겉·안감 똑같이 시접을 박아 뒤집어 사용하였다. 주름의 방향은 안자락쪽이다.

IV. 맺음말

17세기 여자분묘에서 출토된 복식으로 상태가 아주 양호하고 종류가 다양해 저고리, 치마, 속바지와 함께 이 당시 여자들이 입던 포류인 장의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 시기는 조선 중기의 복식 특징이 뚜렷한 시기로 저고리, 장의, 소창의의 특징을 통해 시대적 공통점을 엿볼 수 있었다.

저고리는 6점 모두 길의 형태가 사선길이었고, 깃은 당코깃과 칼깃이 공존했으며, 저고리의 길이는 50cm 내외이다. 소재는 명주, 무명, 모시가 사용

되었고, 홑·겹·솜저고리가 모두 있었다. 허리 정도까지 내려오므로 치마는 허리에 걸쳐 입어 길이가 100cm 내외로 짧았음을 유물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치마의 포폭과 폭수가 다양했으며, 치마의 밑단과 선단 처리가 현대와는 달랐다.

포류 중 장의는 이 지역에서 처음 출토되었고, 장의가 3점 출토되었음도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장의는 소재별로 문단, 명주, 무명 장의가 있었고, 화려한 문양과 거들지의 사용 등을 통해 이 시기 유행 양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의는 여자가 입었다는 기록이 없어 葬俗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 같다.

이 지역에서 출토된 다른 분묘의 복식들과 비교할 때 시대가 늦은 것도 있겠지만 화려한 직물과 문양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통해 여자 분묘에서 출토된 17세기 복식의 일례를 살펴보았다. 비교적 다양한 종류의 의복과 수량이 출토되어 여자의 복식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출토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수의인지 보공품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평상시 입던 보공품이 아닌가 한다. 옷의 상태도 양호하고 직물과 문양도 다양해 앞으로 많은 비교 연구를 통해 조선 중기 여자 염습의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복식 이외에 지요, 명복, 관석 등 여러 부장품이 함께 출토되어 복식 연구에 도움을 준다.

본인의 복식 명칭에 대한 구분도 앞으로 출토복식의 발굴과 또 여러 학자들의 다른 견해에 의해 수정·보완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권영숙·이주영, 조선 초·중기 여자 장의제도,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연구보고 21집, 1995.
- 김동욱, 「임란전후 출토복식」, 임란전후 출토복식 및 상례, 충북대학교박물관보고서, 1983.
- 김영숙,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1999.
- 박성실, 殯殿圖鑑儀軌에 나타난 복식연구(1), 복식 16호, 1991.
- 안명숙, 「하천 고운 출토유물」, 출토복식의 종류 및 특징, 광주민속박물관, 2000.
- 유송옥, 「한국의 복식」, 출토복식:남북,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 유희경·김미자·강순제, 안동김씨 분묘발굴 조사보고서, 온양민속박물관, 1989.
- 장인우, 조선중기 출토복식 중 일반복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1995.
- 장인우·이춘계, 16·17세기 저고리 형태에 관한 연구, 복식 24호, 1995.
- 1) 권영숙·이주영, 조선 초 중기 여자 장의제도,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연구보고 21집, 1995.
- 2) 장인우, 조선중기 출토복식 중 일반복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1995, p. 87.
- 3) 권영숙·이주영, 앞의 논문, 1995, p. 123.
- 4) 박성실, 殯殿圖鑑儀軌에 나타난 복식연구(1), 복식 16호, 1991, pp. 52~55.
- 5) 임란전후 출토복식 및 일반복식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박물관, 1983.
- 6) 김동욱, 앞의 책, 1983.
김영숙,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1999.
유송옥, 한국의 복식, 출토복식:남북,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장인우, 조선중기 출토복식 중 일반복식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1995.
유희경·김미자·강순제, 안동김씨 분묘 발굴 조사보고서, 온양민속박물관, 1989.
- 7) 장인우·이춘계, 16·17세기 저고리 형태에 관한 연구, 복식 24호, 1995, p.38.
- 8) 김동욱, 「임란전후 출토복식」, 임란전후 출토복식 및 상례, 충북대학교박물관 보고서, 1983, p.107.
- 9) 장인우·이춘계, 앞의논문, 1995, p. 43.

· 권영숙·이주영, 조선 초·중기 여자 장의제도, 부산대